



"말씀 · 기도 · 감사의 삶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2023년 4월 30일(제583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2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 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령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입당\_135 봉헌\_220, 512 성체\_159, 155 파견\_139 / 해설\_김지용(예로니모) 제1독서\_한영준(대건안드레아) 제2독서\_유인숙(요한나)  
 Narrator\_Andrew Lee 1st Reader\_Teresa Lee 2nd Reader\_Erin Kim Prayer\_Cindy Lee

**입당 송 | 시편 33(32),5-6 참조**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2,14ㄱ.36-41 Acts 2:14, 36-41**

**화답 송 | 시편 23(22),1-3ㄱ.3ㄴㄷ-4.5.6(◎ 1)**  
 Psalms 23:1-3, 3-4, 5, 6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또는 ◎ 알렐루야.)
- ◎ **The Lord is my shepherd; there is nothing I shall want.**  
 or: R. Alleluia.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In verdant pastures he gives me repose; beside restful waters he leads me; he refreshes my soul.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He guides me in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in the dark valley I fear no evil; for you are at my side. With your rod and your staff that give me courage.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You spread the table before me in the sight of my fo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 Only goodness and kindness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 years to come. ◎

**제2독서 | 1베드 2,20ㄴ-25 First Peter 2:20b-25**

**복음환송 | 요한 10,14 참조**

- ◎ 알렐루야.
- ◎ **Alleluia.**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 I am the good shepherd, says the Lord; I know my sheep, and mine know me. ◎

**복음 | 요한 10,1-10 John 10:1-10**

**영성체송 |**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주 - 님 - 은 나의 목 자 아 쉬 울 - 것 - 없 어 라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Yong Ah Lee,  
 윤정의 알퐁초, 이원숙 글라라,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배춘자 로사리아, 양정미 (Suzie)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한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 속 왕자의 별에 어느 날, 알 수 없는 씨앗 하나가 날아와 꽃을 피웁니다. 왕자는 참 아름답고, 그만큼 예민한 한 송이 꽃을 뒤에 남겨두고 다른 별로 여행을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여러 행성을 거쳐 지구에 도착한 왕자는 한 정원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만의 꽃으로 알고 있었던 소행성의 유일한 그 꽃과 똑 닮은 꽃들이 무려 5천 송이가 넘게 피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같은 교복의 학생들이나, 동일한 군복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군인들 사이에서 남다름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교복의 파도 속에서 딸의 뒷모습을 찾아내어 이름을 부르고, 훈련소의 파르스름한 까까머리 속에서도 아들의 이목구비를 구분해 내고야 맙니다. 물개성의 무리를 뚫고 얼굴을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주는 힘은 언제나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의 힘은 그야말로 대단해서 군중의 한 조각에 불과한 누군가를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로 빛나게 합니다. 언뜻 보면 절대로 구별되지 않고, 무리로 몰려다니는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지팡이를 따르는 것 역시 목자가 양들을 단순히 양떼라는 덩어리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기억하고 안아주기 때문입니다.(요한 10,3) 목자의 목소리 앞에서 양들은 더 이상 무리의 아무개도 아니라, 이름을 기억하고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인격적인 역사를 함께 쌓아 갈 수 있는, 대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뜻하는 '성소(聖召)'는 우리의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다정한 목소리이자 착한 목

자이신 예수님 곁에 우리들이 영원히 머물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나아가 그 응답으로, 당신을 닮아 같은 길을 걸겠다고 결심하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귀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입술로 응답하여 성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목자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은 양들은 그 목소리에 응답을 시작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보기 좋아하셨던 태초의 미소를 생각하며 말씀으로 스스로를 채우고, 당신이 흐뭇해할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정성 들여 심게 됩니다. 그렇게 착한 목자의 목소리를 깨달은 착한 양들은 예수님을 닮은 참 목자의 삶으로 또 다른 양들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지만, 사랑의 부르심은 결코 마르지 않아 얻고 또 얻어 세상에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요한 10,10)

이제 어린 왕자는 왜 자신의 꽃이 정원의 장미와 다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목소리로 길들여져 서로에게 책임이 생긴 그 장미는 다른 무엇으로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진정한 그만의 장미가 되었습니다.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목자의 사랑과, 기꺼이 그 목소리에 길들여지기를 택한 모든 착한 양들의 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진 세례자요한 신부 | 동성고 예비신학생 담당

**5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  
For church movements and groups

---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복음화 사명을 날마다 재발견하여 고유한 은사로 세상의 필요에 봉사하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Church movements and groups may rediscover their mission of evangelization each day, placing their own charisms at the service of needs in the world.

<p><b>김수정 REALTOR®</b>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b>대 건 한 의 원</b>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제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b>STEVE G KIM DDS</b> Family &amp;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b>Tri-Valley Orthodontics</b>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b>N² ART &amp; DESIGN</b>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b>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b> <b>탐탁 부동산</b>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b>민화교실</b> 전통민화 /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 [특별기고] 두 공동체가 맞이한 하나의 부활

트라이밸리 한인 공동체와 미국 플레즌튼 공동체가 함께 맞은 부활로 온 인류가 하느님의 한가죽임을 깨닫는다.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 교회(주임 김현국 요한사도 신부)와 미국 플레즌튼 천주교회(주임 Mark Wiesner 신부)가 성삼일 전례를 함께 봉헌하며 뜻깊은 부활을 맞았다. 두 공동체의 합동 성삼일 전례는 트라이밸리 공동체가 미국 플레즌튼 공동체 의 엘리자베스 성당을 사용하게 되면서 시작되었고 올해로 두 번째다.

두 공동체는 한국과 미국 신자 600여 명이 성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와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를 함께 봉헌하였다. 전례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였고 자료를 통해 번역된 내용이 제공되었다. 강론은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실시했다. 두 공동체가 함께 지낸 성삼일을 통해 느낀 몇 가지 의미를 나눠본다.

첫째, 하느님 안에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 두 공동체는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전례에서 특별한 발씻김 예식을 거행했다. 지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느 때의 발씻김 예식과 달리 원하는 모든 신자들이 발씻김 예식에 참여한 것이다. 한국, 미국, 인도 등 여러 문화권의 신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포옹을 하고 인사를 나누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실천하였다. 국적과 문화는 다르지만 모두가 하느님의 한가죽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둘째, 가톨릭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다. 두 공동체가 함께 봉헌한 미사는 평균 3시간에 걸쳐 거룩하고 장엄하게 거행되었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로 봉헌되었다. 두 언어로 하나의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 살아 가지만 미사 안에서 모든 세대 민족 인류를 위해 기도하며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셋째,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두 공동체가 성삼일을 함께 보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솔직히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다. '두 공동체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서로 불편하게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두 공동체는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의 부활을 맞았고, 부활의 기쁨은 두배가 되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던 것을 하느님께서 가능하게 해 주신 것이다.

트라이밸리 한인 공동체와 플레즌튼 공동체가 함께 지낸 성삼일은 그야말로 은총의 시간이었다. 무언가를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더 크고 귀한 가치를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뛰어 넘으면 기쁨과 보람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번 성삼일을 통해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두 공동체가 맞은 하나의 부활을 계기로 하나 되는 다른 모습들 또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홍순미 테오도라,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 기사 출처: 2023년 4월 30일자 미주가톨릭평화신문 3면

<p>CPA 조미정 (카타리나) <b>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b>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b>HANLEES AUTO GROUP</b>    <b>잭성</b>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b>직통: 510-283-6310</b>  <b>CELL: 510-776-5856</b>  <b>SUE CHO</b>  <b>CELL: 530-220-2848</b></p>	<p><b>PARK CHIROPRACTIC</b>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b>HARMONY ACUPUNCTURE</b>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b>Dublin Pediatric Dentistry &amp; Orthodontics</b>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b>Elizabeth Jihyun Kim, DDS, MS</b>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b>COMPASS</b>  <b>REALTOR® 부동산</b>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b>AIDEN KIM</b> 에이튼 킴 (나콜라오) 부동산 TIM MCGUIRE TEAM</p>



■ 5월 주요 전례 일정

- 5월 3일(수): 요아킴-안나회 미션 순례 및 나들이
- 5월 4일(목): 성시간
- 5월 6일(토): 첫영성체 가족 피정
- 5월 7일(주일): 학생 졸업 축복식(교중미사 중)
- 5월 13일(토) 오후2시: 학생 견진성사(오�클랜드 주교좌성당)
- 5월 14일(주일): 어린이 첫영성체(교중미사 중), Mother's Day
- 5월 21일(주일): 야외미사 및 성모님의 날 행사

■ 생활성가팀 음악 피정 - 노래와 함께하는 기도

- 주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 일시: 4월 29일(토), 오후 7시
- 장소: 소성당
- 대상: 모든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 [http://pf.kakao.com/\\_rApxhs/98699020](http://pf.kakao.com/_rApxhs/98699020)

■ 성 가브리엘 복사단 및 부모 모임

- 일시: 4월 30일(주일), 오후 12시 - 1시
- 장소: Room A
- 문의: 송수경 이레네(925-577-6404)

■ 학생 견진성사 후보자 면담: 4월 30일(주일), 12시(영어미사 후)

※견진성사 시간을 5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로 정정합니다.

■ 요아킴 / 안나회 Mission Carmel 일일 순례

- 일시: 5월 3일(수),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30분
- 만남: 오전 8시 30분, 성당 앞마당
- 미사: 오후 3시, 카멜성당(본당 신부님 집전)
- 준비물: 매일미사책, 매일 드시는 약, 비상약, 스웨터, 목도리(추울 수 있음)
- 모든 간식, 물, 점심식사는 요아킴 / 안나회에서 준비하오니 신청하신 회원님들께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 5월 7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룸A
- 5월에 있을 야외미사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 구역장님들과 반장님들 모두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첫영성체반 일정

- 5월 6일(토): 첫영성체반 가족 피정 / 하이킹
  - 시간: 오전 10시 30분(오전 10시 성당 주차장에서 출발)
  - 장소: Reinhardt Redwood Regional Park Canyon Meadow Staging Area
- 5월 7일(주일), 오후 12시 30분(영어미사 후): 첫고해 및 전례 연습
- 5월 13일(토), 오후 2시 30분: 사진 촬영 및 리허설
- 5월 14일(주일) 부활 제6주일 교중 미사 중 첫영성체 예식, 미사 후 축하식

■ 주일학교 중고등부 스피커 시리즈 3

- 스피커: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마리 조세핀 수녀님
- 일시: 5월 7일(주일), 오전 10시 15분 - 10시 45분
- 장소: 룸A
- 주제: 성소를 발견하는 여정: 나의 새로운 정체성

■ PTA 전체 학부모 대상 총회

- 일시: 5월 7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소성당

■ 학생 졸업 미사

- 일시: 5월 7일(주일), 교중미사 중
-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행사가 미사 중에 있습니다.
- 문의: John Lee(925-487-6055)

■ 친선 축구 경기 안내 (트라이벨리 vs. 산호세)

- 일시/장소: 5월 27일(토), 산호세 인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
- 선수 참가 신청: [tinyurl.com/TVKCCSoccer](http://tinyurl.com/TVKCCSoccer)
- 문의: 성호승 어거스틴(925-394-4283)

■ 북미주 서중부 여성 제14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 3박 4일 교육 일정: 2023년 7월 20일(목) - 23일(주일)
- 장소: St. Clare's Retreat, 2381 Laurel Glen Rd., Soquel, CA
- 문의 및 신청: 울뜨레야 간사(김선기 시몬 510-579-6695)

■ 과달루페 성지순례 안내

- 일정: 10월 25일(수) - 10월 28일(토), 3박 4일
- 비용: \$950(항공료 별도)  
항공료: \$650 예상, 추후 변경 가능
- 신청 마감: 5월 28일(주일)
- 참가 신청 및 문의: 성모회(925-286-5815)

■ 지남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659	\$445	\$2940	\$170	\$270	\$5484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성치(4), 김지수(1-6), 남석훈(4), 두신(3,4), 이성태(3,4), 이용호(3,4), 이종구(4,5), 정종락(5), 조원정(4)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성치(4), 김지수(1-6), 남석훈(4), 이성태(3,4), 이용호(3,4), 이종구(4,5), 정종락(5)

- Bishop's Appeal

김성치(4), 김지수(1-6), 남석훈(4), 두신(3,4), 이성태(3,4), 이용호(3,4), 이종구(4,5), 정종락(5)



부활시기 "신앙의 신비여!" 응답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받으소서.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개인 선택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은 여전히 상황에 따라 착용합니다.
-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9시 - 9시 25분
- 평일(화-목-금): 오전 9시 - 9시 25분
- 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